



하상주보

2018년 7월 29일 (나해)

연중 제17주일

제1703호



제8차 미 동중부 레지오마리에 봉사피정

[제1독서]..... 2열왕 4,42-44

[제2독서].....에페 4,1-6

[화답송] 시편 145(144),10-11.15-16.17-18

[복음 환호송]

(◎ 16 참조)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 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복음] 요한 6,1-15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성가 안내]

○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나이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 입당성가: [19] 주를 따르리
- 봉헌성가: [219]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513] 면병과 포도주
- 성체성가: [182] 신묘하온 이 영적
[156] 한 말씀만 하소서
- 파견성가: [15] 주님을 찬미하라

예수님께서서는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

그때에 ¹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²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³ 예수님께서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⁴ 마침 유대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⁵ 예수님께서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⁶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⁷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이백 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⁸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⁹ “여기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¹⁰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오천 명쯤 되었다.
¹¹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¹²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¹³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 빵 다섯 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다.
¹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¹⁵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예수님의 빵의 기적 이야기에는 하느님 나라의 표징이 담겨 있습니다. 장정만도 오천 명이 넘는 굶주린 군중에게 나누어 줄 빵을 구한다는 것은 인간의 셈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필립보가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이백 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은 세상의 논리를 대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와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임을 표징을 통해 일깨워 주십니다. 수많은 군중을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불리 먹인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들이 모두 먹고 남긴 조각을 모았을 때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다는 성경의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독자의 상상력에 맡겨 둘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의 초자연적 기적이었는지, 우리가 흔히 알 듯 나눔을 실천하는 사랑의 기적의 결과였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빵의 기적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빵으로 허기를 채운 것이 아니라, 군중이 빵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충만함으로 가득 찼고 함께 기쁨을 누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사도는 하느님의 충만한 영광을 맛본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는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겸손과 온유, 인내심과 사랑, 평화와 일치로 말하며 깊은 영적 기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행복은 내 배를 불리고 내 행복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례와 믿음으로 묶여 한 분이신 주님과 성령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 저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 일치할 때 누리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일치는 신앙인이 성령께 받은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성화

“예수님의 사랑, 빵과 물고기의 기적”

페드로 오렌테(Pedro Orrente, 1580-1645)는 스페인 출신의 바로크 화가입니다. 그가 그린 <빵과 물고기의 기적>은 요한복음 6장 1-15절의 말씀이 그 배경입니다.

필립보는 예수님의 뒤편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아는 예수님 앞에 서서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예수님 뒤편에 서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계산만 하지만 예수님 앞에 서면 기적의 가능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아이는 낮은 자세로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봉헌하고, 아이의 시선은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물고기를 향합니다. 아이의 작은 정성이 기적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 봉헌된 빵 다섯 개는 벌써 한 바구니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빵은 다섯 개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한 바구니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빵과 물고기를 축복하신 다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한 오십 명씩 앉아있고, 사도들은 빵이 담긴 바구니를 나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6,36) 하고 제자들에게 이르셨기 때문입니다.



<빵과 물고기의 기적>, 페드로 오렌테

그런데 화가는 우리의 시선을 또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는 한 여인이 어린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고, 사람들은 그 광경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기적입니다. 한 사람이 오천 명을 먹인 것도 기적이지만 한 사람이 오천 끼의 식사를 먹이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분이 바로 내 어머니입니다. 오천 끼의 몇 갑절을 정성스럽게 우리에게 먹인 분이 내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을 지닌다면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손용환 신부의 성경 미술관)

전례

성체강복

성체에 대한 신심의 표현으로, 성체를 현시(顯示 : 성체를 성광에 모셔 나타내 보임)하여 신자들이 성체 조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제가 성체로써 강복하는 성체 신심의 한 전례이다.



▲ 명동성당에서 교황과 함께하는 성체조배를 주례한 조규만 주교가 신자들에게 성체강복을 하고 있다.(2013년 6월 2일)

성체를 성광(聖光)에 모셔 현시한 다음, 분향과 성가, 그리고 묵상이나 장엄 기도 등으로 성체께 특별한 찬미와 흠송을 드리는 것을 말한다. 성체를 성광(聖光)에 모셔 제대 위에 놓고 향을 피우며, 이 때 찬미가가 불려지고 조배와 묵상이 뒤따른다. 두 번째로 향을 피우면서 사제는 어깨보(humerale)로 두 손을 감싸고 성체 현시대를 높이 받들고 십자의 형태로 신자들에게 강복한다. 이 때 신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작은 종을 울린다. 사제와 신자들에 의해 성체 찬미가가 불려지면서 성체는 다시 강보에 모셔지고 이로써 의식은 끝이 난다. 성체강복은 주요 축일과 일요일, 사순절, 피정, 40시간의 성체조배 중에 행해지며, 각 주교들이 지정하는 다른 날에도 행해진다. 본당에서는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성체강복을 한다.

☆ 8월 성체강복 : 8월 3일(금) 오후 8시(7:30 미사 후)

성광(聖光) 라틴어 [Ostensorium] 영어 [Monstrance]



성체현시(聖體顯示), 성체강복(聖體降福), 성체행렬(聖體行列)에서 성체를 보여주는 데 쓰이는 제구(祭具). 보통 금이나 은으로 만들거나 도금한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여러 가지 형태와 장식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탑형(塔形)이나 원형으로, 가운데 부분에 성체를

두는 투명한 반월형(半月形)의 성체용기(聖體容器, lunette)가 있어 물결 모양이나 직선 광선이 방사(放射)된다. 묵직한 받침대에서부터 나온 기둥이 이를 받쳐 주고 있다. 성체의 존엄을 표현하기 위해 보석 등을 이용하여 아름답게 장식하며 꼭대기에는 반드시 작은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없이는 삶의 방향도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7월 22일 주일 삼종기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진리이시며 “예수님과 함께라야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마르 6,30-34 참조)은 사도들이 첫 사명 이후 예수님께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30절) 보고했던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열정적이었지만 힘들었던 그 사명을 겪은 후에, 그들은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연민으로 가득 차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을 주시기 위해 걱정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31절).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향하신 외딴 장소를 사람들이 알아채고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달려가 그곳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실현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예기치 못한 시급한 일이 갑자기 발생하거나, 다른 이들의 필요에 대해 융통성과 유용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본받으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34절). 복음사가는 이 짧은 문장을 통해 천상 스승의 눈과 그분의 가르침을 사진을 찍듯 묘사하면서 매우 강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장면에 나타난 세 가지 동사를 살펴봅시다. 곧, ‘보다(vedere)’, ‘가없어하다/동정하다(averere compassione)’, ‘가르치다(insegnare)’ 입니다. 우리는 이를 사목자의 동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마음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길은 이도 저도 아닌 눈길, 혹은 더



**“우리는 곁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라야
안전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으며,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서 성장합니다.”**

나쁘게 말하자면, 차갑고 냉담한 눈길이 아닙니다. 또한 그분의 마음은 아주 부드러우며 연민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감춰진 필요성도 포착할 줄 압니다. 게다가 그분의 가엾은 마음 (compassione)은 궁핍에 빠진 사람들의 상황 앞에서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곧, 인간과 인류의 역사를 향한 하느님의 태도와 섭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위한 하느님의 자상함과 배려로 이를 드러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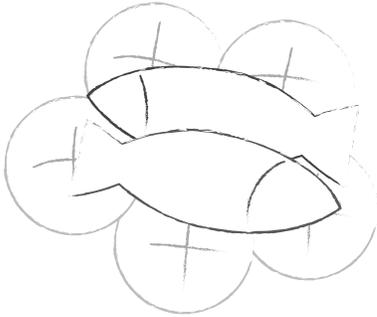
예수님께서는 인도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전체를 보시며 가엾은 마음이 드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분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리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십니다. 곧, 메시아가 굶주리고 허기진 군중에게 주셨던 첫 번째 빵이 말씀의 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여정을 밝혀줄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 없이는 삶의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길을 잃으며 우리의 존재는 실망과 불만족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라야 안전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으며,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서 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위한 선물이 되셨고, 우리 각자를 위한 사랑과 봉사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서, 나눔과 봉사의 자세를 통해 우리 이웃의 문제들, 고통과 어려움을 짊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길 빕니다.

17th Sunday in Ordinary Time

July 29, 2018

LOAVES AND FISHES Word Search



When Five thousand people came to hear Jesus,

He turned one boy's bread and fish into enough for everyone.

How much did He have to start with?

Read the below Gospel and find all the word in **CAPITALS** to find out!

[JN 6:1-15]

When Jesus raised his eyes and saw that a large crowd was coming to him, he said to PHILIP, "Where can we buy enough food for them to eat?" He said this to TEST him, because he knew what he was going to do. Philip answered him, "Two hundred days' wages worth of FOOD would not be enough for each of them to have a little."

Andrew said to him,

"There is a boy here who has FIVE barley LOAVES and two F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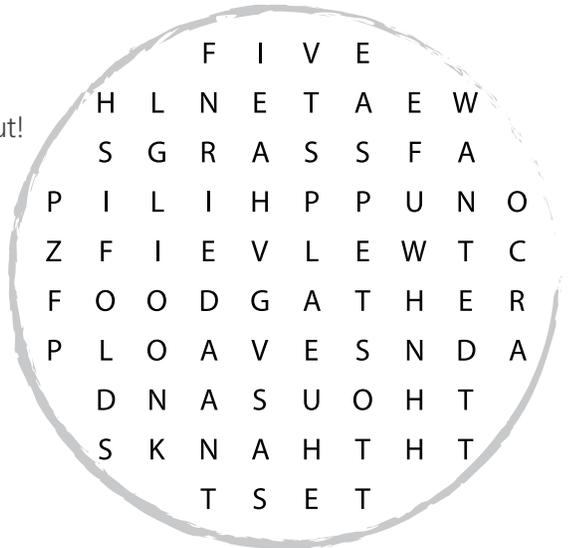
but what good are these for so many?" Jesus said, "Tell the people to sit down." Now there was a great deal of GRASS in that place.

So the men sat down, about five THOUSAND in number.

Then Jesus took the loaves, gave THANKS, and distributed them to those who were seated, and also as much of the fish as they WANTED.

When they had EATEN their fill, he said to his disciples, "GATHER the pieces left over, so that nothing will be wasted."

So they collected them, and filled TWELVE wicker baskets with fragments from the five barley loaves that had been more than they could eat.



Jr. High SERVE 2018

How did you feel about this event as you participated?



This year was my third consecutive time participating in the Jr. High WorkCamp at St Leo's. As always, I felt a strong relationship to my faith, but it being my last time, I think I may have truly given my full effort this year. I have learned many wonderful things from the priests and the youth directors there, and have had a really fun time getting to meet new friends and greeting old ones as well. Thank you God, for this wonderful opportunity and experience!

Eric Whang, Rising 9th grade

• Word List •

EATEN FISH FIVE FOOD GATHER GRASS LOAVES PHILIP
TEST THANKS THOUSAND TWELVE WANTED



미 동중부 레지오 마리아 제8차 봉쇄피정

본당 레지오 마리아 하늘의 문 꼬미시움(단장 정선화 루시아)은 지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8차 미 동중부 레지오마리아에 봉쇄피정을 가졌다. 워싱턴 디씨 가톨릭대학에서 열린 이번 피정에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볼티모어, 리치몬드, 노스캐롤라이나 랄리 등 5개 본당에서 80명의 레지오단원이 참가했다. 강사는 조민현 요셉 신부(뉴저지 뉴웁교구 성 미카엘 성당)와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뉴저지 뉴웁교구 St.Paul Catholic Church in Ramsey)가 맡았다.

백인현 안드레아 주임신부(동중부 레지오마리아 지도신부)는 인사말에서 “성모님의 군대인 레지오마리아에 단원들이 봉쇄피정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부르심에 가까이 응답하며 성모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의는 ‘길의 인도자이신 성모님’을 주제로 총 7개 강의와 세 대의 미사, 성체 강복으로 이루어졌다.

피정에 참석했던 김소정 아나다시아(워싱턴 103위 성인 성당)는 “기도할 때는 머리로 올라가는 스위치를 끄고 가슴으로 해야 한다는 조민현 신부님의 강의를 들으며, 그동안 자신을 힘들게 했던 불안과 걱정, 원망, 우울감, 자기 비하 등 괴로움이 사라지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며 “일그러진 얼굴로 왔다 웃는 얼굴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레지오단원들은 손에 손을 잡고 힘찬 레지오단가를 부른 후 파견미사와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 각자 받은 은총의 시간들을 나누며 복음의 성모님군단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사진: 지수성 요한 / 기사 제공 : 정선화 루시아



1 2018 - 2019년도 사목보고회

- 일시 : 7월 29일(일) 오후 1시, 성당 (오후 12시 점심식사)
- 참석 대상 : 회장단, 사도회 임원, 재정위원, 구역봉사자 (소공동체), 단체장(신심 및 활동단체), 청소년 사도회, 주일학교(CCD, CYO) 교감, 하상문화원 원장, 하상방송 코디네이터, 하상 성인학교 교장/교감, 하상 한국학교 교장/교감
- 문의 : 허진 세바스찬 총무 (703)376-1372

2 병자 영성체

- 일시 : 8월 3일(금)
- 신청 : 조영인 형제 (703)264-0050

3 성체강복

- 일시 : 8월 3일(금) 오후 8시(7:30 미사 후)

4 회장단 회의

- 일시 : 8월 3일(금) 오후 8:10, 회의실

5 구역임원 교육

- 일시 : 8월 5일(일) 오전 11:30(B-1,2)

6 메디케어 세미나 (교육부)

- 일시 : 8월 5일(일) 오전 11:30(A-1,2)
- 내용 : 메디케어 기본상식
- 강사 : 최경분 클라리(Assa Financial 대표)
- 문의 :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7 CCD 여름 캠프 신청

- 대상 : 3학년 - 7학년(새 학기 4학년-8학년)
- 일정 : 8월 3일(금) - 8월 5일(일)
- 장소 : Pine Creek Retreat Center, Grove, VA
- 신청 : 8시, 10시, 11시 40 미사 후, 친교실

8 바오로회 총회 및 새 임원 환영식

- 일시 : 8월 5일(일) 오후 1시(나눔터)
- 문의 : 이성근 예레미아 (703)672-1932/
E-mail : sleeh@yahoo.com
- 바오로회에 관심있는 20-30대 결혼하신 분들은 모임에 참석해 주세요.

9 성모회 임원회

- 일시 : 8월 5일(일) 오후 1시(B-1)

10 주일학교 등록 안내

- 2018-2019 주일학교 등록을 하상관 로비에서 받습니다.
- 신청 : 7월 8일-8월 12일, 10시 미사 후
- 등록비 : 한 자녀 \$80 / 한 가정 두 자녀 \$150 / 한 가정 세 자녀 이상 \$200
- 문의 : 윤정보일 (703)371-3589

11 2018 - 2019년도 하상 한국학교 등록 안내

- 학사 일정 : 2018년 9월 8일- 2019년 5월 18일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 등록 : 하상관 교무실 (8월 3일까지) 10시 미사 후 친교실 (8월 5일 - 8월 26일) 우편접수 가능(성당 웹사이트 참조)
- 문의 : 육옥영 교감 (703)598-5540

12 셔틀버스 픽업 추가 및 셔틀버스 시간표

- 8월 5일(일)부터 오전 9시 Tysons Corner 시니어 아파트에서도 픽업합니다.
- 알렉산드리아 시니어 아파트와 애난데일 시니어 아파트는 변동이 없습니다.
- 셔틀버스 시간표 변경(8월부터) 오전 7:30(옛 IBM주차장) - 오후 1:30(성당)까지 매 1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13 워싱턴 맨발 재속 가르멜 침묵 피정

- 일시 : 8월 12일(일) 오전 8:30 - 오후 5시
- 장소 : Monastery of Discalced Carmelite Friars
- 참가비 : \$50(점심포함)
- 신청 : 박은미 마리스텔라 (703)955-6633

14 7월 29일(일) 우드브릿지 미사 없습니다.

10시 미사 미사곡 변경(8월 5일부터)

자비송 : 320 / 대영광송 : 321
복음 환호송 : 366 / 거룩하시도다 : 322
주님의 기도 : 388 /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 389
하느님의 어린양 : 324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 · 미사시간 찾기
인터넷에서 아래 주소를 입력하면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17주간 : 1 역대 25-29, 요한 21장

KACM TV 하이라이트

8월 2일(목) 오후 5:00-6:00
8월 3일(금) 오후 8:00-9:00
8월 5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가톨릭뉴스

- **님 따라 한평생** : 가톨릭 대학장, 서울대교구 보좌, 광주 대교구장 등을 역임한 최창무 주교의 일생을 돌아본다.

교향님의 8월 기도 지향

일반: 가정의 보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을 내리는 경제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인류의 보화인 가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8년 7월 22일(연중 제16주일)

주일헌금	\$ 6,945.00
교무금	\$ 7,160.00
교무금(크레딧카드)	\$ 2,975.00
특별헌금	\$ 1,983.54
2차헌금	\$ 0.00
합계	\$ 19,063.54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 주차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옛 IBM 파킹장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 주차장 ↔ 성당 간 셔틀버스 시간표 ▶

주차장 → 성당	오전 7:20 - 7:50 (매 10분 간격) 오전 9:20 - 10:20 (매 10분 간격)
성당 → 주차장	오전 11:15 - 11:45 (매 10분 간격) 오전 11:55 - 12:30 (봉사자 차량)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성균(스테파노), 김경화, 윤규희(발바라), Thomas Byrne, 정맹근(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박제중(요셉), 송영하(요한), 김용구(베네딕토), 김영지(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신순영,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이냐시오), 안순겸(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영(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고필승(셈마), 백영수(마리아), 김정희(요셉), 전김두(베드로),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노)

♥ 근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루지노),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비도),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손범기(펠릭스), 윤벽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진(안토니오),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고미엘(미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경(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요세), 박홍모(이냐시오), 이호천(제임스)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7월 29일(일)	연중 제17주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8시, 성당), 사목보고회(오후 1시, 성당), 우드브릿지 미사 없음
30일(월)	연중 제17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오후 3:30)
31일(화)	성 이냐시오 데 로올라 사제 기념일	평일미사(오후 7:30, 성당), 성령 기도회(오후 8시), 성서 통독반(오후 8시, B-4),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오후 3:30)
8월 1일(수)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주교 학자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11시, 성당),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오후 3:30), 성서 통독반(오후 8시), 바오로 소공동체 모임(오후 8시)
2일(목)	연중 제17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오후 3:30)
3일(금)	연중 제17주간	병자 영성체,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오후 3:30), 평일미사(오후 7:30, 성당), 성체강복(평일미사 후 오후 8시), 회장단 회의(오후 8:10), CCD 여름캠프(8월 5일까지)
4일(토)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파티마 첫 토요일 성모심신(오후 6:15)
8월 5일(일)	연중 제18주일	구역임원 교육(오전 11:30, B-1,2), 성모회 임원회(오후 1시, B-1), 바오로 총회(오후 1시, 나눔터), 교육부 세미나(오전 11:30, A-1,2)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키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 (알베르도)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아병일 (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과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철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웨딩사진 전문 Soowonlee.com 703-678-9215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세미나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인터넷 예약 가능 www.drjohnseok.com 카카오톡: neurocare 703-581-3719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레드핀 소독 사업체, 가정집, 해충방제 백상윤 (마키엘) 703-881-1155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김응권 척추신경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센터빌 703-815-2300	첼로 레슨 첼로 시작하는 어린이부터 전공생 입시레슨(생인 취미 레슨가능) Kim-Cello.com 703-472-3208	페어팩스 부동산 Nina Park 703-303-6993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